

복건성, 석재가공 중심지로 주목

수출 대부분 화강암 제품으로 저렴한 원가가 가장 큰 경쟁력



세계 석재가공의 중심이 점점 아시아, 그것도 중국을 향하고 있다. 그 중심지는 다른 아님 복건성이다. 해관통제의 통제에 따르면 2002년 중국 석재 수출입 총액이 16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세계 석재무역총액의 16%에 달하는 액수이다. 수출액은 11억 4천만 달러로 2001년에 비해 20%가 증가했고, 그 중 화강암의 수출액은 자그마치 7억 7천만 달러에 이른다.

2002년 복건성 석재 수출액은 7억 5천만 달러로 전국 석재수출의 65%를 차지하여 전국 석재수출의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화강암의 수출은 경쟁 우위를 잡하고 있다. 복건 석재의 수출은 거의 대부분이 화강암 제품이고, 세계의 석재업체에 있어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가장 큰 원인이 저렴한 원가에 있다. 원가는 저렴하다는 점

이 복건 석재를 세계 석재 중심으로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공산 지원의 우월

복건은 중국동남부 연해에 위치하여 구릉이 있는 산(山) 지대라 석재자원이 풍부하다. 광산은 복건성에 넓게 퍼져있어 화강암, 현무암, 희토류, 인선암 등이 분포되어 있고, 환색, 회색, 적색, 흑색 등 원석의 색상도 다양하다. 화강암 원석 채굴 역시 원가가 전국에서 가장 낮아 가공업체에 품질은 우수하고 당시는 낮은 원료를 공급 할 수 있다.

교통의 편리함

해안 항구를 끼고 있는 복건은 수출 원가를 낮출 수 있고, 석재 수입 및 가공지역을 확장하는데 유리하다. 국제 경쟁력에서도 교통

의 편리함은 원가를 크게 낮출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석재 생산지역, 가공지역과 하운, 천주, 복주 등의 항구가 겨우 1~3시간의 거리에 있기에 운송에 편리를 뿐 아니라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노동력 자원의 우수함

원가 경쟁에 있어 저렴한 노동력은 그 어느 조건에 우선한다. 석재업은 절단·연마·조각이 중요하다. 개인이 풍부한 노동력을 통해 일본이나 한국처럼 노동력 원가와 급상승으로 인해 생산에 차질을 빚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복건은 특히 화강암 채취 및 조각 방면으로는 많은 속련된 기술자도 보유하고 있다.

석재가공 산업화와 접목해 개발

완벽한 석재공업 부대시설 시스템

복건 석재공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할 뿐 아니라 그와 더불어 석재 기계·엔진기·금강석 공구·줄단기 등 석재관련 공구 분야도 급성장하고 있다. 지금은 품질이 뛰어지지만 10여년 안에 복건의 석재 공구도 선진의 대형에 들어 초대형 설비시설을 제외하고 공구 대부분의 자체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생산 원가는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다. 석재공업분야도 성장할 것이다. 복건성은 조만간

우수한 기업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도태되기 마련이다. 석재업체도 마찬가지이다. 스스로 개발하고 시장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석재공업은 복건의 주요산업 중 하나이고, 기업은 개발과 경쟁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여진다.

복건에는 400여 석재기업체가 있고, 하문·남안·해안에서는 매년 석재전시회를 열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참여하여 석재업의 동향을 파악한다. 복건 석재기업은 이미 안정기기에 접어들었으며 중국석재는 생산·가

중국, 세계 석재 무역액의 16% 차지

복건성, 전국 수출액의 65% 달해

완벽한 석재공업 부대시설 시스템을 갖추고 석재업은 해외 선진 기술 도입과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로 더욱 큰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광물과 제품의 개발능력

중국 대륙은 풍부한 석재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보기도 문원석도 있다. 복건은 다른 지역보다 더 풍부한 자원과 자본·기술·인재를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학자 등을 통해 상호보완 및 우수 품종 채취 기술을 개발해내고 있다.

많은 기업이 내장공사 회사를 설립하여 생산제품의 품질과 내장공사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 국내 대형 시장을 책임지고 있다. 석재가공 산업화와 접목해 개발

공·무역에 있어 세계의 중심으로迈进하고 있다.

해관통제에 의하면 2002년 중국 수출의 7억 7천만 달러의 화강암 제품 중 일본으로 수출된 것이 4억 3천만 달러로 1위이고, 그 다음이 1억 3천만 달러인 한국이다. 이 두 나라가 중국에서 사들인 화강암 제품이 72%인데 그 대부분이 복건에서 수출된 것이다. 이는 멀리 치외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유리한 지리적 조건과 고임없이 개발하고 노력하는 정신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향후 10년, 복건성의 석재업은 가공할 만한 일정으로 세계 석재의 생산·가공·무역의 중심이 될 것이다. 세계 석재의 중심은 중국이고, 중국 석재의 중심은 복건이며, 이 거대한 힘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백두산 천지 '괴물' 출현

중국 10대 명산 중 하나인 백두산(長白山) 천지에서 괴물이 나타났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7월 11일 오전 9시경부터 50분 동안 장백산 천지에서 괴물이 다섯차례 모습을 드러냈다"며 "마지막 한차례는 20여 미리가 한꺼번에 출현했다"고 전했다.

장백산 천지 괴물 연구자인 우광사오는 "한번에 이렇게 많은 괴물이 출현한 것은 빽 예년이라 체울았는 일이다. 괴물은 주로 여름

에 나타나는데, 보통 한두마리에 그쳤다. 그나마 제일 많이 나타난 때가 1880년대 7~8미리가 고작이었다"고 말했다.

목격자인 김립성 임업청 부청장 장부평은 "괴물들은 1~2분, 또는 20~30분동안 한 마리 혹은 여러 마리씩 다섯 번 출현했다"고 전했다.

또 "괴물들은 작은 흰점이나 검은 점처럼 보였으나 움직이는 생물이 분명했다"고 했다.

여러 해 동안 임업청에 근무하

면서 자주 천지를 찾은 장부평은 이날 길립성 장백산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관리국장 정씨와 감속성

에서 온 손님을 안내하기 위해 갔다가 괴물을 발견했으며 동행한 10여명도 함께 보았다고 전했다.

장백산 천지 괴물은 세계 4대 불가사의(物之不可信)에 사는 괴물, 원시인, 비행집(비, 버뮤다 삼각주) 중 하나로 알려져있다.

길립성 장백산 문화연구회·천지 괴물 연구센터에서는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있으며, 센터 책임자는 '괴물의 형상이 분명하게 담긴 사진을 제공하는 자에게는 상을 수여하겠다'고 전했다.

가족납골묘 - 품질과 실로로 평가 받겠습니다.



(주)두레 와 함께할 가족을 모십니다.

납골묘 가공, 시공업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두레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DR
DURE**

한국석재협회
지정업체

(주)두레석재

TEL : (02) 2168-2888(代)

CELL : 010) 9833-1338

FAX : (02) 2168-2899